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정기정¹, 성미현², 송지현³, 하지선^{4*}

¹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원, ²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⁴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ffect of Dual-income Parents' Work-Family Conflict on Depression: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Gijung Jung¹, Mihyeon Seong², Ji-Hyeun Song³, Ji Sun Ha^{4*}

¹Researcher, PhD, RN, Institute of Biomedic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Hospital,

²Assistant Professor, PhD, RN, Department of Nursing, Chang Shin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PhD, RN, Department of Nursing, Cheju-Halla University,

⁴Assistant Professor, PhD, RN, Department of Nursing,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정서적 관리에 대한 실천적 지원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20세 이상의 맞벌이 부모 214명이며, 2021년 4월에 온라인으로 수집된 자료를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일-가정 갈등은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beta = -.188, p < .01$), 종속 변인인 우울($\beta = .539, p < .001$)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Sobel 검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 2.468, p = .013$). 본 연구 결과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이와 관련된 우울에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모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회적 지원 마련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주제어 : 가족 갈등, 사회적 지지, 우울, 부모, 직장, 매개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of dual-income parents. The subjects were 214 dual-income parents aged 20 years and the data collected online in April 2021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 statistical program. This study conducted three stage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which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support ($\beta = -.188, p < .01$), which was the mediating variable, and depression ($\beta = .539, p < .001$), which w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third stage, the study confirmed that social support ha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obel test result as well ($z = 2.468, p = .013$). In conclusion, the study confirms the need to establish strategies and arrange social support to solve the emotional problems of dual-income parents.

Key Words : 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Depression, Parents, Work, Mediation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Ji Sun Ha(hajs@bist.ac.kr)

Received October 26,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2

Revised January 9,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유배우자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총 423만 6천 가구에 이르며 그중 216만 4천 가구가 맞벌이 가구로 보고되었다[1]. 이를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분류해 보면 13~17세는 60만 9천 가구로 그 수가 가장 적고, 6세 이하는 81만 3천 가구, 7~12세는 74만 1천 가구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은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자녀 양육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2]. 더욱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자녀와 보내야 할 뿐 아니라 가정 학습, 가정 양육 및 자신의 직장 업무 상호 간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3] 부가적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어린 자녀가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더욱 극대화된다고 보고하였다[4]. 또한, 취학 연령의 아동을 둔 경우에도 부모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처럼 맞벌이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 및 자녀 양육에 양적, 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그들이 속한 가족의 생애 주기이며 이는 보편적으로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알려져 있다[6]. 이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파악을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맞벌이 부모는 그들의 자녀 관리 측면 외에도 근무환경, 가족 상황 등으로 인해 다양한 역할 갈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7].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남편보다 아내의 역할 가중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역할에 대한 불공평함을 지적해 왔다[8]. 하지만 이전과 달리 남편의 인식 변화와 가사 참여 증가, 더욱이 COVID-19로 인한 아버지의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바[9] 종전의 사고를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외벌이 가정의 아버지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 돌봄 시간이 더 길고, 외벌이 가정에서 그들의 아내에게 자녀 양육 책임이 더욱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공평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맞벌이 부모라 할지라도 일-가정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1]. 덧붙여 사회인이자 부모로서 살아가는 맞벌이 부모 모두의 삶은 어렵고, 늘 시간에 쫓겨야 하며,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 연속적 과정[12]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함께 헤

아릴 당위성과 더불어 맞벌이 부모의 문제를 부와 모로 각각 양분화 하여 규명하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제기한다[8].

일-가정 갈등이란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이 여러 이유로 상호 양립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13],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십 년 간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로 알려져 있다[14]. 일-가정 갈등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 중에서 특히 우울[15,16]은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우울함이 지속될 경우 정신장애인 우울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17]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일-가정 갈등은 맞벌이 부 혹은 모의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임이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아버지에게서 이들 두 변인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8]. 또한, 주당 20시간 혹은 40시간을 근무하는 취업 모에서도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갈등과 우울 수준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9,20].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에서 제공되는 도움을 일컫는 사회적 지지는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써,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보고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21]. 이러한 관련성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연구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22]. 특히 COVID-19 상황에서 부모들은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어[23]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관련하여 현시점에서는 맞벌이 부모의 우울 문제와 결부하여 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적 지지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일-가정 갈등과 우울 사이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24]. 구체적으로 취업 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에 상관성이 성립함을 규명하였고 나아가 취업 모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보고되었다[25, 26]. 이러한 결과를 통합하여 최근에는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 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대상자의 우울을 조절하는 변인이 입증되기도 하였다[27]. 하지만 현재까지 시도된 연구는 맞벌이 모가 주 대상자였으며,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만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어 추후 이를 보완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COVID-19로 인해 맞벌이 부모의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였고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 지원체계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28].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변화 상황에서 자녀 돌봄은 대부분 가족에게로 전가되어 맞벌이 부모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기에 이르렀다[29]. 그 결과 맞벌이 부모의 스트레스와 걱정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이러한 변화된 일상을 그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30]. 이로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COVID-19로 더욱 가중된 정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며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극대화 할 수 있는[1,4]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와 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경감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고 그들의 우울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 수립 및 정서적 중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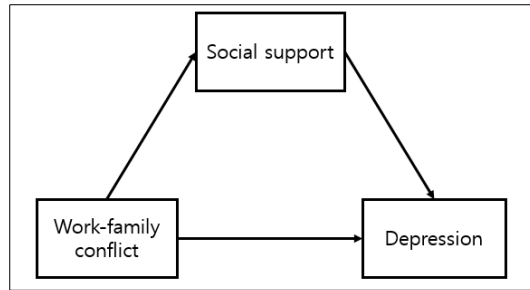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Framework

2.2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국내 20세 이상의 맞벌이 부와 모를 대상으로 2021년 4월에 온라인 전문 설문 기관에 의뢰하여 편의 표집된 자료(SM-202102-005-2)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맞벌이 중인 자로 자료 수집 당시 배우자가 휴직 상태일 경우 제외하였다. 또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상자의 경우 중학생 이상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외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232명의 자료 중 응답 문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설문을 완료하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한 1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4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최초 자료 수집 시의 책임 연구자와 본 연구자를 포함해 원 자료(raw data)에 권한을 가진 모든 공동저자들에게 본 연구를 설명하고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후 암호가 설정된 엑셀 파일로 자료를 전달받아 본 연구를 위해 이용 및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가정 갈등

본 연구에서의 일-가정 갈등은 Work-Family Behavioral Role Conflict Scale[31]의 한국어판 설문[32]으로 평가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설문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3.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Zimet과 Farley [33]가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34]이 변안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척도의 12문항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2.3.3 우울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CES-D)[35]의 한국어판 설문[36]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1일 이하(극히 드물다)' 0점에서 '5~7일(대부분 그랬다)' 3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설문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고,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30세 이상 39세 이하가 85명(39.7%)이었고, 40세에서 50세가 129명(60.3%)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05명(49.1%), 여성이 109명(50.9%)이었다. 학력은 대학졸업자가 131명(61.2%)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5명(2.3%)으로 가장 적었다. 직업은

사무직이 124명(57.9%)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직이 6명(2.8%)으로 가장 적었다. 월 가계 소득은 700만 원 이상이 92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미만이 4명(1.9%)으로 가장 적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가 136명(63.6%)이었고, 40시간 초과가 78명(36.4%)이었다. 맞벌이 부모의 총 자녀 수는 1명이 107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4명(1.9%)이 가장 적었다. 막내 자녀의 만 나이는 9세 이상 12세 이하가 70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2살 이하가 31명(14.5%)으로 가장 적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4)

Variables	Category	n(%)
Age (year)	≤30-39	85(39.7)
	40-50	129(60.3)
Sex	Male	105(49.1)
	Female	109(50.9)
Education (year)	≤High school	5(2.3)
	College	35(16.4)
	University	131(61.2)
	≥Graduate school	43(20.1)
Occupation	Management	24(11.2)
	Professional	35(16.4)
	Service industry	25(11.7)
	Office job	124(57.9)
	Blue-collar job	6(2.8)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300	4(1.9)
	300-399	13(6.1)
	400-499	25(11.7)
	500-599	38(17.8)
	600-699	42(19.5)
	≥700	92(43.0)
Working hours per week(hour)	≤40	136(63.6)
	>40	78(36.4)
Number of children	1	107(50.0)
	2	90(42.0)
	3	13(6.1)
	4	4(1.9)
Age of youngest child	≤ 2	31(14.5)
	3-5	52(24.3)
	6-8	61(28.5)
	9-12	70(32.7)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일-가정 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7, p<.05$). 그 외의 일반적 특성들은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study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4)

Variables	Work-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Depression		
	Mean	t or F	Mean	t or F	Mean	t or F	
1	≤30-39	76.80	-0.52	46.98	0.81	19.74	-0.31
	40-50	78.02		46.16		20.22	
2	Male	76.84	-0.59	46.02	-0.93	19.88	-0.20
	Female	78.21		46.94		20.17	
3	≤High school	78.40	0.75	39.60	1.83	20.20	0.22
	College	74.63		47.03		19.83	
	University	77.36		46.82		19.67	
	≥Graduate school	80.35		45.84		21.26	
4	Management	77.42	0.26	46.79	0.78	22.00	1.10
	Professional	77.00		48.29		17.20	
	Service industry	79.32		46.40		22.52	
	Office job	77.64		46.02		20.01	
	Blue-collar job	71.67		44.67		18.67	
5	<300	81.50	0.89	44.50	0.30	29.00	0.59
	300-399	77.23		46.77		19.38	
	400-499	72.08		47.12		19.48	
	500-599	75.61		45.76		19.29	
	600-699	79.79		45.90		20.50	
	≥700	78.66		46.92		19.97	
6	≤40	75.84	-2.07*	46.46	-0.06	19.99	-0.06
	>40	80.68		46.53		20.09	
7	1	78.01	0.10	46.36	0.05	19.91	0.88
	2	76.86		46.64		20.27	
	3	77.62		46.23		17.15	
	4	80.00		47.25		27.25	
8	≤ 2	78.16	1.67	48.42	4.56	21.58	0.67
	3-5	77.33		48.40		18.52	
	6-8	80.98		44.05		20.90	
	9-12	74.41		46.33		19.70	

* $p<.05$
 1.Age, 2.Sex 3.Education 4.Occupation 5.Monthly house -hold income
 6.Working hours per wee 7. Number of children 8. Age of youngest child

3.3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정도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정도는 77.54±16.92점, 사회

적 지지 정도는 46.49±7.17점이었고, 우울 정도는 20.03±11.07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cores for Work-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N=214)

Variables	M	SD	Min.	Max.	Range
Work-family conflict	77.54	16.92	31.0	119.0	25-125
Social support	46.49	7.17	13.0	60.0	12-60
Depression	20.03	11.07	2.0	54.0	0-60

3.4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은 사회적 지지와 음의 상관관계($r=-.188, p<.01$)가 있었고, 우울과는 양의 상관관계($r=.593, p<.01$)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r=-.395, p<.01$)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Work-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Work-Family conflict (N=214)

Variables	1	2	3
1.Work-family conflict	1	-.188**	.539**
2.Social support	-.188**	1	-.395**
3.Depression	.593**	-.395**	1

** $p<.01$

3.5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일-가정 갈등과 우울과의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선정된 변인의 정규성을 분석한 결과 왜도는 -0.40~0.52 척도는 0.12~1.99로 각각 절대 값 3미만, 10미만을 충족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하였다[37]. 독립 변인의 상관관계는 .80미만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37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Cook's distance 값은 절대 값 1.0을 초과하지 않았고 잔차의 등분산은 ZPRED-ZPESID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Durbin-Watson에서는 2.069로 기준 값인 ±2와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회귀분석 시행을 위한 회귀 모형의 기본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인 일-가정 갈등이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188, p<.01$). 2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인 일-가정 갈등이 종속 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539, p<.001$). 3단계에서는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 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가정 갈등과 사회적 지지를 예측 요인, 우울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가정 갈등($\beta=.315, p<.001$)과 사회적 지지($\beta=-.304, p<.001$)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부분 매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N=214)

Path	B	β	SE	R ²	Adj R ²	F
Step 1 X→M	-.080**	-.188**	.029	.035	.031	7.784**
Step 2 X→Y	.353***	.539***	.038	.291	.288	86.949***
Step 3 X→Y M→Y	.315*** -.470***	.482*** -.304***	.036 .085	.380	.374	64.694***

** $p<.01$, *** $p<.001$

X=Work-Family Conflict; M=Social Support; Y=Depression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확인하였다(Table 6). 그 결과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부분 매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z=2.468, p=.013$).

Table 6. Sobel Test on Depression with Social Support as Mediators of Work-Family Conflict (N=214)

Path	B	SE	z	p
X→M	-.080	.029	2.468	.013
M→Y	-.470	.085		

X=Work-Family Conflict; M=Social Support; Y=Depression

4. 논의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선행 문헌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자녀의 생애주기 상 이러한 어려움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역할 간 갈등과[38,39] 그로 인한 고충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 이

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정도를 확인하였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맞벌이 부모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일-가정 갈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점수는 80.68점으로 주당 40시간 이하를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점수 75.84점에 비해 높았다. 이는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일-가정 갈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유정 등(2018)의 연구에서는[40] 근로 시간이 길수록 일-가정 갈등이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진우와 금종예(2021)의 연구에서는[41]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가정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고, 역으로 정우진과 김강식(2014)의 연구에서는[42] 초과 근로시간으로 일-가정 갈등이 높아짐을 입증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부 뒷받침하였다. 이는 일-가정 갈등 경감을 위해 맞벌이 부모의 걱정 근로시간 보장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Tammelin 등(2017)의 연구에서[43]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에는 근무 일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근로 시간에만 집중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맞벌이 부모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정의 유연성이 모두 고려된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의 유연성은 개인이 시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점과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에 균형을 돕는 자원이 될 수 있어[44]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 선택 근무제, 시차출퇴근제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과 같은 스마트 워크(smart work)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워크는 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이 강조되며 그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45]. 선행 연구에서[46] 맞벌이 부모 역시도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 의거하여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연근무제의 경우 시행 가능한 일부 기업에서만 도입되고 있는 한계로 양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점수는 77.5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판 일-가정 갈등 도구[32]의 타당화를 위해 맞벌이 부부

를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 연구의 일-가정 갈등 점수 89.63점에 비해 낮았다. 선행 연구의 경우 국내에 COVID-19가 시작되어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있어 극단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2020년 초기에 조사된바[4], 조사 시점의 차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염병 유행 초반에는 감염방지 대책과 권고지침의 변화로 불확실성이 생겨나는데 이는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게 된다[39].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의 생활과 직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47] 점으로 미루어 선행 연구 결과와의 차이가 지지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맞벌이 부모가 일-가정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양립하는 일은 COVID-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더욱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46]. 이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맞벌이 부모가 겪는 일-가정 갈등의 속성을 현시점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하여 한층 더 강화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우울 점수는 20.0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CES-D 도구를 사용하여 취업 모의 우울을 측정 한 연구[48]의 12.08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선행 연구의 경우 자녀 연령을 만 5세 이하의 유아로 한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까지 모두 포함하며, 자녀의 연령 선정기준으로 인한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주 양육자뿐 아니라 교육자라는 새로운 책임과 역할이 부가되어 일-가정 갈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49] 이러한 일-가정 갈등은 우울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50]. 이를 근거로 선행 연구와의 우울 점수 차이는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adloff(1977)의 연구에서[35] 제시한 우울 절단 점 16점에 비해서도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가 높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가능 우울(possible depression) 즉 우울 증상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임상적 우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덧붙여 우울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비교해 여성이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다[5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으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COVID-19 팬데믹은 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임상적 영향이 크다고[52]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현재 맞벌이 부모의 우울은 COVID-19

상황과 맞물려 그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된 현 상황에 맞춰 이들의 우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맞벌이 부모 맞춤형 우울 중재 방안과 효율적인 우울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에는 각각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갈등에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며[53], 취업 모에서도 일-가정 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을 나타내어[25] 본 연구의 일-가정 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성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과 우울과의 상관성을 보고하였는데[20] 구체적으로 취업 모에서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한다고 나타나[19] 본 연구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상관성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모의 경우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아지는 부적 상관성을 보고하여[54]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의 상관성 결과도 지지되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는 선행 연구를 통해 모두 뒷받침되었다.

주요 변인들의 이러한 상관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매개 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서 일-가정 갈등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지지는 이 두 변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는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자 및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간접적으로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련성은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일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55,56]. 구체적으로 일과 가정의 두 영역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38]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모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는 일-가정 갈등은 특히 직장 분위기가 가족 친화적이지 않을수록 그 정도가 높아진다고 한다[57]. 같은 맥락으로 조숙인(2021)의 연구에서도[46] 맞벌이 부모가 일과 가

정을 양립할 수 있으려면 가족 친화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은 육아 휴직 의무제, 적정 양육 시간 보장 등과 같은 가족 친화적 근무 제도를 촉진하여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경감을 통한 심리적 안녕 도모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가족 친화적 제도 도입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 분석 및 맞벌이 부모의 가족 친화적 환경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 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58,59]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 더욱 명확하게는 배우자의 지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일부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갈등 정도가 높을 때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우울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는 맞벌이 부모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대상자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맞벌이 부모 모두를 포함하여 일-가정 갈등과 우울 사이에 맞물린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파악해 보는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COVID-19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현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 전략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단계로 COVID-19 상황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해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적 지지가 무엇인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확인 결과, COVID-19 상황에서 맞벌이 부모들은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직접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 요구도가 높았다[46]. 이러한 현 요구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지지 제공은 맞벌이 부모가 직장 생활로 인해 다른 곳에 자녀를 맡기는 것에서 발생하는 죄책감[60]을 덜어 주고,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는 부가적 이점도 가져다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맞벌이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선행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선이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61] 뒷받침될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일-가정 갈등은 맞벌이 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주었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그들의 정서적 문제 해결에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시사되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가 맞벌이 부 혹은 모로 한정되어 맞벌이 부부일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설계되어 이미 수집된 자료에서 주요 변인을 선별 및 적용해야 하는 한계로 다양한 변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 연령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맞벌이 부모 모두를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COVID-19 시기에 수집된 자료를 통해 워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맞벌이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맞벌이 부부로 확대 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전향적 연구 설계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간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 등 더욱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우울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서적 중재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0).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in the Second Half of 2020 (Employment of double-earner households and one-person households).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0200
- [2] J. H. Lee & W. S. Park. (2020).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fathers and working parents of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5(6), 275-293. DOI : 10.20437/KOAECE25-6-12
- [3] S. H. Moon, E. Oh & S. Y. You. (2021). The Changed Parenting Experiences of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Face of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2(2), 162-174. DOI : 10.12799/jkchn.2021.32.2.162
- [4] S. I. Cho, N. Kim, M. Jang & E. Park. (2020). Research

- on Childcare Support Solutions for Balancing Work-Family Life in Dual-Earner Families. *KICCE(online)*.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5078>
- [5] M. L. Heggeness. (2020). Estimating the immediate impact of the COVID-19 shock on parental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and the double bind of mother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8(4), 1053-1078.
DOI : 10.1007/s11150-020-09514-x
- [6] S. Kim. (2020). Factors Related to the Commute Time of Dual-earner Couples: From a Family Developmental Perspectiv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2), 255-266.
DOI : 10.6115/fer.2020.019
- [7] A. L. Presti, M. Molino, F. Emanuel, A. Landolfi & C. Ghislieri. (2020). Work-family organizational support as a predictor of work-family conflict, enrichment, and balance: Crossover and spillover effects in dual-income couple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6(1), 62.
DOI : 10.5964/ejop.v16i1.1931
- [8] S. Kim & S. Kim.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Work-Family Compatibility of Dual-Earner Famili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3), 355-370.
DOI : 10.6115/fer.2013.51.3.355
- [9] D. L. Carlson, R. Petts & J. Pepin. (2020). Changes in parents' domestic labo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OI : 10.31235/osf.io/jy8fn
- [10] J. Seo & J. E. Lee. (2021). Paternal Child Care Time of Dual-Income and Single-Income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9(2), 29-45.
DOI : 10.7466/JFBL.2021.39.2.29
- [11] I. Lee & Y. Ko. (2021).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Work-Family Conflict and Work-Family Enrichment of Married Nurses.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6(1), 26-41.
- [12] S. H. Lim & B. Lee. (2020). Life of Coparenting: Focused on Parents with Infants and toddl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3), 353-381.
DOI : 10.21509/KJYS.2020.03.27.3.353
- [13] J. H. Greenhaus & N. J. Beutell.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DOI : 10.5465/amr.1985.4277352
- [14] S. Fiaz & M. A. Qureshi. (2021). How perceived organizational politics cause work-to-family conflict? Scoping and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Future Business Journal*, 7(1), 1-18.
DOI : 10.1186/s43093-020-00046-5
- [15] Y. Ha & M. Ha.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dual-income couple: Application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6), 175-190.
DOI : 10.22251/jlcci.2021.21.6.175
- [16] S. K. Kim, S. Park & H. Rhee. (2017).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depression in married working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3), 267-275.
DOI : 10.14400/JDC.2017.15.3.267
- [17] E. S. Yang & Y. H. Kim. (2021).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on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Couple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9(3), 1-14.
DOI : 10.7466/JFBL.2021.39.3.1
- [18] E. Cho & S. Lee. (2021).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Between Working-Family Fathers Raising Infant Children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ve Symptoms and Anger Toward Children. *Journal of Korea Open Parent Education*, 13(1), 127-144.
DOI : 10.36431/JPE.13.1.7
- [19] S. Lee, E. Kim & S. Yoo.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of Working 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22(4), 767-782.
DOI : 10.18205/kpa.2017.22.4.014
- [20] M. Seto, K. Morimoto & S. Maruyama. (2004). Effects of work-related factors and work-family conflict on depression among Japanese working women living with young children. *Environmental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9(5), 220-227.
DOI : 10.1007/BF02898103
- [21] Levine et al.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Latina Mothers Living in Miami-Dade County, Florida. *Cureus*, 12(10), 1-8
DOI : 10.7759/cureus.10848
- [22] K. A. Kim & H. W. Hwang. (2010).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ual-Earner Coupl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hung University*, 26(1), 143-168.
- [23] M. L. Kerr, H. F. Rasmussen, K. A. Fanning, & S. M. Braaten. (2021). Parenting During COVID-19: A Study of Parents' Experiences Across Gender and Income Levels. *Family Relations*, 70(5), 1327-1342.
DOI : 10.1111/fare.12571
- [24] Kang, H. R., & Choi, S. Y. (2001).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of married working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1), 23-42.
- [25] A. N. Kim. (2017).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lation among parenting stress, work-mother role conflict and parental satisfaction perceived by employed mother with having infant child.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 Childhood Education*, 22(5), 209–231.
DOI : 10.20437/KOAECE22-5-09
- [26] D. Gjerdingen, P. McGovern, L. Attanasio, P. J. Johnson & K. B. Kozhimannil. (2014).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employment, and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Board of Family Medicine*, 27(1), 87–96.
DOI : 10.3122/jabfm.2014.01.130126
- [27] J. H. Oh. (2020). *The Effects of Working Mom's Work-Family Conflict on Depression with Childhood Children : Social support as a moderating effect*.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8] Y. K. Choi, W. Park & H. M. An. (2020). A study on how to check the response system in the field of COVID-19 childcare and support child-care gap. *KICCE(Online)*.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5053>
- [29] D. S. Lee. (2020). Gender Inequality in Child Care in Times of Covid-19: Implications from a Gender-Equality Perspective. *Health and Welfare Forum*, 12, 64–78.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762>
- [30] B. Lee & K. Lee. (2021). Parent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with Their Child's Distance Learning During COVID-19 School Closure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9(2), 63–78.
DOI : 10.7466/JFBL.2021.39.2.63
- [31] M. A. Clark, R. J. Early, B. B. Baltes & D. Krenn. (2019). Work-family behavioral role conflic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4(1), 39–53.
DOI : 10.1007/s10869-017-9529-2
- [32] M. Seong, J. H. Song, J. S. Ha, G. J. Jung & S. Sok. (2020).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Work-Family Behavioral Role Conflict Scale (WFBRC-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4), 9273.
DOI : 10.3390/ijerph17249273
- [33]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 G. K. Farley.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DOI : 10.1207/s15327752jpa5201_2
- [34] J. S. Shin & Y. B. Lee. (1999).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Psychosocial Well-being of the Unemploy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7, 241–269.
- [35] L. S.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DOI : 10.1177/014662167700100306
- [36] K. K. Chon,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 65–76.
- [37] Kline, T.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Sage Publishing.
DOI : <https://dx.doi.org/10.4135/9781483385693>
- [38] S. Yang & C. S. Shin. (2011). Work-Family Conflicts: Challenges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70–103.
DOI : 10.15709/hswr.2011.31.3.70
- [39] M. Sim. (2020).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95(6), 360–363.
DOI : 10.3904/kjm.2020.95.6.360
- [40] Y. J. Choi, M. R., Choi., & S. B. Choi. (2018). The Effect of Dual Earner Couple's Role Assignment on Work-Family Conflict,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19(1), 47–93.
DOI : 10.22862/ksjr.2018.19.1.002
- [41] J. Lee & J. Kum. (2021). Does the 52-Hour Workweek Regulation Reduce the Inequality in Working Hours between Husband and Wife?. *Journal of Government Studies*, 27(1), 219–247.
DOI : 10.19067/jgs.2021.27.1.219
- [42] W. J. Jeong & K. S. Kim. (2014). Working Time, Work-Family Conflict and Turnover Intention.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17(2), 69–87.
- [43] Tammelin, M., Malinen, K., Rönkä, A., & Verhoef, M. (2017). Work schedules and work-family conflict among dual earners in Finland,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family Issues*, 38(1), 3–24.
DOI : 10.1177/0192513X15585810
- [44] S. Y. Kwon & J. Lee. (2019). Dual-Earner Couples' Work Arrangements and Work-Life Balance in Korea: A Person-Centered Approach.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7(4), 1–25.
DOI : 10.7466/JKHMA.2019.37.4
- [45] J. Lee., G. Byun & S. Lee. (2021). A Study on Smart Work in the Post Covid-19 Era: A Review of Research from 2004 to 2021.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24(3), 147–193.
DOI : 10.24991/KJHRD.2021.09. 24.3.147
- [46] S. I. Cho. (2021). *Work-family balance status and needs of dual-income households in the COVID-19 situation*.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Online)*.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153>
- [47] T. G. Reio Jr. (2020). Uncertainty and fear of the unknown: What can human resource development do?.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31(2), 147.
DOI : 10.1002/hrdq.21394
- [48] H. Y. Yi & M. R. Chung. (2018).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Parenting Efficacy on Preschoolers' Affective Empathy: Multi-Group Analysis

by Mother's Employment Statu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3(1), 91-109.
DOI : 10.18205/kpa.2018.23.1.005

[49] Y. J. Hong & K. LEE. (2020). Identifying the Typology of Changes in Work-Family Conflict among Working Mothers with an Early School-Age Child and Examin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4(1), 97-120.
DOI : 10.5718/kecp.2020.14.1.97

[50] Guille et al. (2017). Work-family conflict and the sex difference in depression among training physicians. *JAMA internal medicine*, 177(12), 1766-1772.
DOI : 10.1001/jamainternmed.2017.5138

[51] G. Parker & H. Brotchie. (2010).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22(5), 429-436.
DOI : 10.3109/09540261.2010.492391

[52] Feinberg et al. (2021).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Parent,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1-14.
DOI : 10.1111/famp.12649

[53] G. Van Daalen, T. M. Willemsen & K. Sanders. (2006). Reducing work-family conflict through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3), 462-476.
DOI : 10.1016/j.jvb.2006.07.005

[54] H. W. Hwang & J. Y. Shin. (2009). A Study on the Role Conflict and the Quality of Life of Dual-Earner 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1), 45-71.

[55] S. J. Kim. (2016). Married Working Women's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on Depression. *Soc. Welf. Res*, 47(3), 161-185.
DOI : 10.16999/kasws.2016.47.3.161

[56] A. K. Haggag, W. Geser, H. Ostermann & C. Schusterschitz. (2012). Relation of work family conflict and role quality on depressive symptoms in mothers. *Journal of Public Health*, 20(6), 661-671.
DOI : 10.1007/s10389-012-0497-8.

[57] Y. K. Kim & H. R. Koo. (2016). Work-family Conflict and Work-family Enhancement among Married Men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20(2), 99-117.

[58] K. M. O'Brien, H. V. Ganginis Del Pino, S. K. Yoo, R. G. Cinamon & Y. J. Han. (2014). Work,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Employed mothers in Israel,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461.
DOI : 10.1037/a0036339

[59] M. S. Jeon & N. M. Yang. (2013). The relation of work-family conflict of full-time working mothers to depression : Mediating effect of spouse's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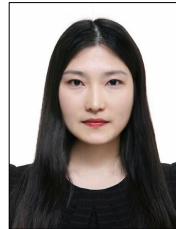
[60] S. Cho & S. Son. (2021). A Typology of Work-Family

Spillover of Employed Women with Children and a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9(2), 15-28.
DOI : 10.7466/JFBL.2021.39.2.15

[61] Y. M. Kim (2020). Current Status and Application of Family-Friendly Gender Policy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s applied to public institu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2), 13-21.
DOI : 10.14400/JDC.2020.18.2.013

정 기 정 (Gi-Jung Jung)

[정회원]



- 2015년 8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20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병원의생명연구원 연구원
- 관심분야 : 치매환자, 노인, 성인
- E-Mail : gjjung1004@naver.com

성 미 현 (Mi-Hyeon Seong)

[정회원]



- 2015년 2월 : 동아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20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중년 성인
- E-Mail : mihyeon0624@cs.ac.kr

송 지 현 (Ji-Hyeun Song)

[정회원]



- 2015년 2월 : 제주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20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제주 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정신간호, 중년부부
- E-Mail : kasili0809@chu.ac.kr

하 지 선 (Ha, Ji Sun)

[정회원]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 2021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21년 9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정신건강, 취약계층
- E-Mail : hajs@bist.ac.kr